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소개

I 포럼 개요

□ 포럼 비전 및 목표

- (비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 (목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강화 및 기술 생태계 조성 촉진

□ 포럼 구성

-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22.9월 1기 출범)
 - ① 정책 분과, ② 기술 분과, ③ 표준화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
 - 정책 분과 : 개인정보 기술개발·보급 및 산업 진흥정책 검토 및 제언 등
 - 기술 분과 : 신기술 관련 이슈 발굴 및 개선안 마련, 국내외 동향 분석 등
 - 표준화 분과 : 국내외 개인정보 분야 표준화 개발 이슈 발굴 및 활동 지원 등
- ※ 포럼 운영계획 및 연구활동 참여 등에 따라 분과 구별 없이 탄력성 있게 운영

< 개인정보 기술포럼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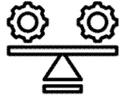


□ 주요 활동

- 기술포럼 총회, 운영위원회, 기술세미나, 분과 회의 등 참여
- 시의성 높은 개인정보 기술 관련 연구 수행 및 분과별 성과물이 향후 정책 및 과제 제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구축
-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분야 기술/산업 및 정책/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

II '25년 주요 성과

□ '25년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성과

(총회) 포럼 계획		주요 실적	
운영 체계 확립		운영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주요 계획 및 운영 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2회, 운영위원회 1회 개최
기술 세미나 개최		공개 세미나 1회, 분과 미니세미나 2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 이슈 관련 기술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기술세미나(7월, 보건의료데이터) · 기술분과 내부세미나(10월, 지능형CCTV) · 표준화분과 미니세미나(10월, 표준개발 과제 성과 등)
분과 회의 및 상시 자문		실무협의회의, 분과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활동 계획에 따른 정기회의 · 정책/기술/표준화 연구, 신규 과제 아이템 도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 구성 및 목표 설정, 운영방안 수립 · 핵심 논의 주제 선정 및 성과물 활용 방안 논의 · 연구활동 점검 및 성과물 도출 세부 논의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 (정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정책 제언 · (기술)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 (기술)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 (기술) 안전한 AI를 위한 PET 적용 동향과 활용 전략 · (기술) AI 컨택트센터(AICC)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PET) 적용방안 · (기술) 익명처리 실무 사례 안내서 · (기술) 지능형CCTV 도메인 운영 및 대응기술 미니세미나 ·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 동향 · (표준화) 개인정보위 표준화 과제 공유 미니세미나 </div>
성과 홍보		성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활동 활성화 및 포럼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포털 내 자료실 게시판 운영 · 기술포럼 공개 세미나 보도자료 배포 등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술포럼 개최

등록 2025.07.10 15:32:46



[서울=뉴스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선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왼쪽부터 일곱 번째)과 정수원 개인정보 기술포럼 의장(왼쪽부터 여덟 번째)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선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수원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리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적합성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공·하계·제조·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과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다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적 활용 수요가 높아졌으나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명처리 및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alpaca@newsis.com

Copyright © NISW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위한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 세미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2차 활용 방안 모색 및 법·제도적 지원 방향 논의

[보안뉴스 어이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전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송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폐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전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립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P.E.T는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접근 방식을 뜻한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의 효용성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예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적 활용 수요가 높아졌으나,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명처리 및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